



무바라크를 퇴진시키고 타흐리르 광장에서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

이집트 혁명이 독재자를 물리치다

독재자가 물러갔다. 무바라크는 갔다. 이스라엘의 친구, 제국주의의 친구, 미국의 친구이자 세계은행의 친구가 물러났다. 무바라크는 역사상 가장 큰 대중 운동에 의해 제거됐다.

제국주의가 사랑한 이른바 '온건한 강자'는 민주화 활동가들의 입을 틀어막을 뿐 아니라 극단적 잔인함, 정실주의, 부패로 얼룩진 정권을 운영했다. 무바라크 정권은 이집트인들 뿐 아니라 아랍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무바라크가 해야한 것은 제국주의, 이스라엘, 독재자들과 석유 생산 왕국들에게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무바라크는 전임 대통령인 안와르 사다트가 1979년 서명한 이스라엘과의 평화 협정에 뒤이은 거대한 반발에 힘입어 집권할 수 있었다.

무바라크는 '이탈' -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아랍 국가들의 연합을 깨려는

미국의 전략 - 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1978년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서명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 덕분에 군사적 부담이 준 이스라엘은 1982년 레바논을 공격할 수 있었다. 이 침략이 사브라와 샤틀라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는 결과를 낳았을 때 무바라크는 침묵을 지켰다.

무바라크 정권은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을 점령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도왔다. 그는 2006년 아랍 정부들을 동원해 헤즈볼라와 레바논 저항세력을 고립시키려 했고 레바논의 친미 인사들에게 돈을 댔다.

무바라크는 1987년 팔레스타인 인티파다를 진압하려는 시도를 적극 지원했다. 그는 이집트 언론들이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라고 명령했다. 이런 이집트의 도움 덕분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는 미국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었다. 그는 1990년 걸프 전쟁에 파병했고 2001년과 2003년 각각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로 향하는 미국 군함들에게 수에즈 운하를 개방했다. 그는 이집트를 거대한 감옥으로 바꿨고 '테러와의 전쟁'의 '특별 인도' [이른바 '테러' 용의자를 불법적으로 납치해 심문하는 것] 정책에 자신의 고문실을 제공했다.

무바라크는 최악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시했다. 그는 국영기업의 사유화를 진행했고 1950년대 쫓겨난 지주들이 토지를 집적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집트를 '나일강의 호랑이 경제'로 바꾸려던 무바라크의 꿈 때문에 많은 이집트인들이 빈곤으로 내몰렸다. 월급이 3백26파운드(약 60만 원)에 불과한 이집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1984년부터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에 물가는 크게 올랐다.

무바라크는 독립적 노동조합을 금지했

고 활동가들을 감옥에 보냈고 고문했다. 그는 국영기업들을 자기 하수인과 세계적 기업에 넘겼다. 무바라크와 그의 부패한 친구 - '1천대 가문들'로 불리는 - 는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는 선거를 조작하고 반대자를 감옥에 가두는 등 이집트를 자기 왕국처럼 운영했다.

이제 무바라크가 제거되면서 이스라엘은 고립됐다. 모든 아랍 독재 정권의 안위가 위태로워졌다. 수십 년 동안 아랍 세계를 물들였던 체념의 분위기가 이제 깨졌다.

이 혁명은 지난 30년간 추진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번 이집트 시위가 시작되자 이스라엘의 (하레츠)는 이스라엘이 '전략적 곤경'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이집트 혁명 덕분에 제국주의와 그의 중동 동맹들은 전략적 절망에 빠지게 됐다.

이집트인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다

시위가 시작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었다. 이집트인들이 과연 아랍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오래되고 잔인한 국가를 상대로 싸울 수 있을까?

3주 후, 옛 독재자는 갔다. 30년 만의 가장 큰 대중 항쟁에 의해 쫓겨난 것이다.

이 투쟁은 지하 저항 네트워크, 블로거, 민주주의 활동가, 노조 조합원,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조직된 행동들로 시작됐다.

평범한 이집트인 수십만 명은 튀니지에서 시위와 파업이 벌어지는 동안 숨을 죽이고 있다가 튀니지의 독재자가 물러나자 내심 쾌재를 불렀다. 그들은 돌연 자신들도 아래로부터 이집트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

이집트의 최대 야당인 무슬림형제단은 시위 전날 회원들을 거리로 부르겠다고 발표했다.

수도 카이로와 만수라에서 수만 명이 행진했다. 나스라 시, 기자, 슈브라에서도, 알렉산드리아, 수에즈와 룩소르에서도 그랬다.

경찰은 예측과 달리 수백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방방곡곡에서 행진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시위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진정한 첫 돌파구는 1월 28일 발생했다. 무바라크 정권은 시위를 막으려고 전화를 끊었고 인터넷을 차단했고 소요 진압 경찰 수만 명을 거리에 배치했다.

모스크의 설교자들은 정권의 노선을 따르는 설교를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처음에는 수만 명, 나중에는 수십만 명이 모였고 행진했다.

그들은 카이로 도심의 모든 골목에서 경찰과 싸웠다. 최루탄, 고무총, 심지어 총탄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타흐리르 광장을 점거할 수 있었다.

경찰로부터 타흐리르 광장을 되찾은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집트 전국의 경찰서들이 불탔고 고문실이 파괴됐다.

보안군이 사라졌고 민중이 도시를 통제하게 됐다. 이 때 사람들은 탱크와 함께 들어온 군인들을 해방자로 환영했다.

그러나 무바라크를 굴복시킨 것은 탱크가

아니었다. 거리를 점거한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화염병, 칼과 돌을 들고 거리를 시위대로부터 뺏으려는 정부 깡패들과 맞서 싸웠다. 사람들은 타흐리르 광장뿐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와 방방곡곡의 거점들을 지켰다.

그들은 바리케이드를 세웠고 보도블럭을 깨서 만든 돌로 무장했고 다시 한 번 머리를 숙이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는 단호함을 보였다.

그러나 만약 또 다른 투쟁의 돌파구 없었

더라면 시위대 수백만 명도 무바라크를 몰아내는 데 충분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무바라크 정부가 타협안을 제시하고, 뒤에서 협상하고 거래를 할 '자유주의 정치인들'로 구성된 새로운 얼굴들을 내세웠어도 거리에 있던 수백만 명은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아래로부터 터져 나온 마지막 결정타는 거대한 노동자 파업과 시위였다. 이 파업이 군장성들과 대통령을 분리시켰고 병사들이 혁명에 가담하면서 군 자체의 분열을 낳을 가능성을 만들었다.

따라서 무바라크를 비행기에 태우는 것은 장군들의 몫이었지만 역사를 만든 것은 민중이었다.

타흐리르 광장을 지켰던 라밥은 이렇게 말했다. "혁명 과정은 여성인 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하루 24시간을 거리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성차별적인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집단적 기억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무언가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이가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무바라크 퇴진 시위에 나선 국영 텔레콤이집트 노동자들

사진: Hossam el-Hamdey

근본적 변혁의 실현 가능성도 더 커졌다

이집트 민중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혁명을 만들었다. 호스니 무바라크는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독재자들 중 한 명이었고 미국과 모든 서방 열강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섰고 타흐리르 광장을 점거하고 총탄과 최루탄을 맞으면서도 견뎠다. 이것은 한 가지를 증명했다. 즉, 그들은 수많은 보통 사람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가장 억압적이고 굳건해 보이는 국가 기구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런 용감한 투쟁을 벌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 삶을 통제

할 잠재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회주의자들이 언제나 주장해 온 점을 증명한 것이다. 그들이 행동할 때 낡은 사고, 편견, 금기들이 사라진다. 단결 투쟁의 열기가 뜨거웠을 때 타흐리르 광장에서 성과 종교적 분열이 도전받았다.

이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싸울 것이 많이 남아 있다. 노동자들은 혁명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대에 등장했다. 이제 정치적 자유뿐 아니라 경제적 정의를 위한 요구를 놓고 투쟁을 벌일 때다.

이집트 조직 노동계급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무바라크를 무

너뜨릴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집트인 40퍼센트를 하루 2달러의 소득으로 살도록 강요하는 체제에 도전할 수도 있다.

만약 혁명이 깊어지고 확산된다면 혁명은 완전히 새로운 이집트를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엘리트와 다국적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움켜잡았다. 또, 이집트 혁명은 전 세계의 억압받는 사람과 착취받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다.

무바라크의 몰락 소식을 듣고 5대륙의 노동계급 거주지나 빈민가에 울려 퍼진 환호들은 투쟁의 자신감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21세기 새로운 혁명의 시기가 열리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혁명은 최악의 독재자들을 끌어내리는 수준을 넘어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도전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집트는 세계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할 필연적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집트 혁명은 수많은 사람이 식

량이나 깨끗한 식수 부족으로 죽는 세계, 지구의 미래 자체가 미친 듯한 경쟁으로 위협받는 세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집트가 보여 준 것은 30년의 독재와 끔찍한 탄압 체제도 불과 몇 주 만에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주 이후 사회주의 사회를 쟁취하려는 투쟁은 더는 꿈이 아니게 됐다. 오히려, 논리적인 다음 단계로 보인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당신은 억압의 사슬 외에 잃을 것이 없다.